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4년

제 253 호

총기 49년 창교절

종령유시문



오늘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밀교 종단 총지종을 창종하신 지 마흔여덟 돌이 되는 날입니다. 뜻깊은 창교절 을 맞아 승단의 모든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축하고자 합니다.

현대 한국불교에 밀교를 중흥시켜 그 뿌리를 내린 지, 어느덧 반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불교에 밀교를 새롭게 탄생시 킨 원정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되새 기며, 제2의 창종을 위해 승속 모두 가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일은 창종 일에 즈음하여 모든 종도들이 견지해 야 할 기본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총지종을 창종하시면서 삼밀(三密)과 육행(六 行)을 수행덕목으로 하여 복(福)과 지혜(智慧)를 함께 닦을 것을 설파하 셨습니다.

삼밀은 밀교 수행법으로써 결인을 맺으며, 진언을 외우고, 마음으로 불 보살과 그 진언 등을 관하는 것입니 다. 삼밀수행의 공덕은 겪어보지 않 고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 법미(法 味)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고 체득한 수행자만이 그 오묘한 진언의 공능(功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언염송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하 게 정진 수행하는 가운데 이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도 빼 지송(持誦)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심성과 마음을 수양하는 일은 시대가 달라졌 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와 가정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지고, 삶은 더욱 팍팍 해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사람의 심 성은 종교의 감로와 자양분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감로 와 보살핌의 밑거름을 우리 불자들이 뿌리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수행덕목으로, 종조님 께서는 육행(六行) 실천을 강조하셨

부처님께서 시설(施說)하시고 종 조님께서 강설(强說)하신 육행(六行) 의 실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몸살 을 앓고 있는 전 세계 인류에게 반드 시 필요한 구휼법(救恤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코로나 방역 의료진과 종사 자들을 위하여 물심으로 베푸는 것이 오, 지계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하는 것이며, 인욕은 생활의 불편함 을 감수하는 것이오, 정진은 거리 두 기를 생활화하는 것이며, 선정은 지 친 심신을 스스로 안정시키고자 노력 하는 것이오, 지혜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는 마음자세입 니다. 이것이 시대에 걸맞은 육행 실 천법이며, 그 자체가 곧 수행이며 불 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겨내고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마음자세가 우리들의 과제이며, 긍정 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수행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넘어진 자, 땅 을 짚고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창종일을 맞이하여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도록 정진합시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 신력과 관 먹지 않고 이생이 다하도록 진언을 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 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총기 49년 12월 24일 불교 총지종 종령 법공 합장

1972년 12월 24일 창교, 용맹정진 49년 맞이 창종 반세기 앞둔 기념 법회 전국서 봉행 예정

불교총지종은 오는 12월 24일 오전 10시 총기 49년 창교절을 맞아 기념 봉 축 법회를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 한다.

이날은 1972년 12월 24일 종조 원 정 대성사께서 한국 정통 밀교 종단으 로서 관세음보살 육자진언과 준제진언 으로 교화하는 생활불교 불교총지종의 창종을 천하에 선언한 날이다. 종단의 연중 불공 중 참회 불공의 경우 11월 6 일부터 시작하여 49일 정진 후 창교절 을 회향의 날로 삼는다. 용맹정진의 깊 은 수행력과 굳건한 종지를 세워나가 는 것이 종조 원정 대성사의 창종의 뜻 을 받든다는 의미의 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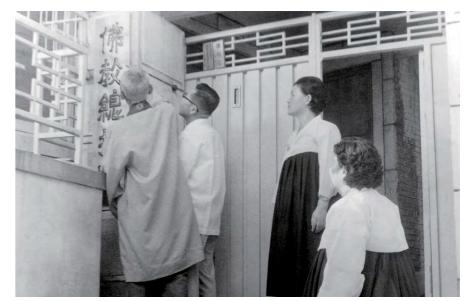
창종 반세기를 앞둔 이번 창교절을 맞아 종령 법공 예하는 유시문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새롭게 탄생시킨 원정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되새기며, 제2의 창종을 위해 승속 모두가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일은 창종일에 즈음 하여 모든 종도들이 견지해야 할 기본

자세"라 주지하고, 최근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마음에 대해 "보 시는 코로나 방역 의료진과 종사자들 을 위하여 물심으로 베푸는 것이오, 지 계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며, 인욕은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오, 정진은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 는 것이며, 선정은 지친 심신을 스스로 안정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시 대에 걸맞은 육행 실천법을 설파했다.

이번 창교절 봉축 법회는 코로나19 로 인해 지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 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발표하는 사회 적 거리 두기 단계의 종교시설 지침에 따라 법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년과 같은 창교절 기념 문화 프로그램은 제한되고, 공양 제공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총기 50년 창교절을 기념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준 비 중이다. 이미 하반기 원정기념관(본 산 총지사 소재)을 새롭게 단장하였으



원정대성사께서 불교총지종이라는 종명을 손수 현판하시는 모습

며, 원정 대성사의 인품과 정신세계가 울림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진영(초상 화)을 새로 봉안하기 위해 제작 중이 다. 또 지난해부터 집필에 들어간 원 정 대성사의 일대기는 연내 완료될 예 정으로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 50년의 역사와 문화, 포교 등 발자취와 성과를

영상으로 생생하게 기록하게 될 다큐 멘터리는 불교TV와 손잡고 진행 중이 며, 역사책 '총지 50년사'는 승단과 교 도가 다 함께 동참하여 창종 정신과 반 세기 종단 역사를 재정립한다는 목표 로 작업 중이다.

박재원 기자

제 6, 7대 중앙종의회 의장 역임, 송하 대정사 입적

11월 20일 세수 87세, 경남 산청 선산에 안치



불교총지종에서 한평생 수행과 교화 로 정진해 온 기로스승 송하 대정사가 지난 11월 20일 세수 87세, 법납 40세로

입적했다. 송하 대정사는 1981년 중앙 교육원 아사리과정 수료하고 승직에 올 랐으며, 제 5,6,7대 중앙종의회 의원을

거쳐 제 6,7대 종의회 의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맡는 등 종단 발전에 앞장서 왔 으며, 현 통리원 재무부장 덕광 정사(실 지사 주교)의 부친이다.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에서 통리원 장(葬)으로 나흘간 이루어진 장례는 종 령 법공 예하, 장의위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전국 승직자들과 유가족이 참석 총기 23년 밀인지 대정사 품수 한 가운데 11월 23일 오전 6시 총무부 장 원당 정사의 집공으로 진행된 고결 총기 26년 제7대 중앙종의회 의장 식을 마지막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총기 28년 사회복지재단 감사 고인은 부산 영락공원에서 다비식 후 총기 30년 사감원장, 인사위원회 위원 경남 산청 선산에 모셔졌다.

송하 대정사 행장

- 총기 10년 자석사 주교, 지송급 법사 품수
- 총기 14년 제4대 중앙종의회 의원
- 총기 15년 실보사 주교
- 총기 18년 제 5대 중앙종의회 의원
- 총기 22년 제 6대 중앙종의회 의장
- 총기 22년 종립학교법인 대동학원 감사
- 총기 23년 전당건설위원
- 총기 23년 성화사 주교

- 총기 30년 기로원 진원

종/조/법/어

부부가 화순한데 자손들이 창성함은 영원히 변함없는 우주만유 법칙이라

= 지면안내

5면 법우 정사 이달의 법문

7면 기획특집/돌아보는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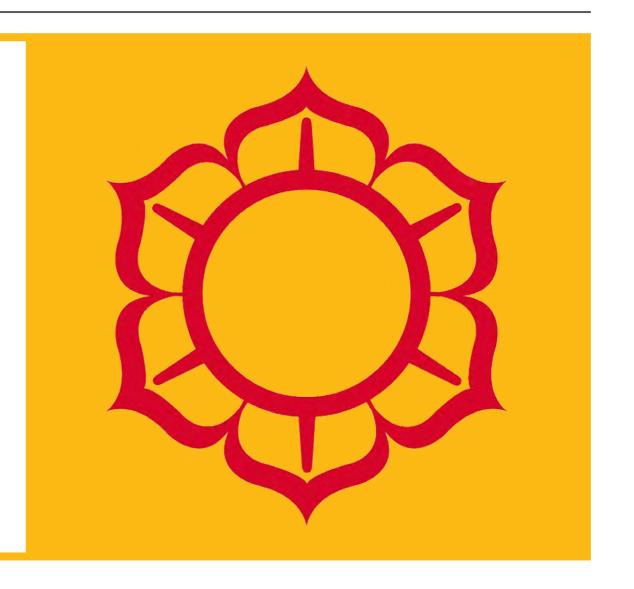
총기 49년 창교절 기념법회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의궤와 수법을 정립한 생활밀교종단 총지종은 총기 49년 창교절을 맞이하여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일시 _ 총기 49년(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장소 _ 전국 각 사원 서원당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 준수

불교총지종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불교총지종 50년사 제작 중간보고회' 개최

11월 10일 발간위원 등 참여, 진행 사항 계획 공유





종단 50년사 발간위원회(위원장: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지난 11월 10일 '불교총지종 50 년사 제작 중간보고회'를 갖고 그 동안의 진행 사항과 결과물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종보실 이선희 실장의 진행 으로 지난 4월 위촉된 총지종 50년사(가칭) 발 간위원회 위원과 종무원 14명, 집필 작가 3명 이 참석해 1부 50년사 목차 보고와 질의응답 2 부에서는 진행사항 보고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발간위원장 인선 정사는 모두 발언에서 참석 자들에게 "50년사 작업을 계기로 종단의 내부 적 사료 정리를 잘 마무리 하고, 새로운 원력을 세워 종단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료 조사 결과 불교총지종은 해방이후 한국 밀 교의 개념과 기틀을 확립했고, 엄격한 위계와 전통 밀교사상을 체계화 했다. 즉신성불과 불 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내세운 종단의 교상판석과 사교이상을 정확히 이해하 고, 역사적 의미와 50년 간 계승발전의 과정을 기술하는 게 50년 사의 목표다"고 설명했다.

50년사는 지난 3월부터 내부 준비 과정을 거 쳐 4월 제작 업체를 선정하고, 통리원장을 위 원장으로 발간위원 5명, 감수위원 3명, 편집위 원 5명 총 14명을 포함하는 발간위원회를 구 성했다. 발간위원회는 6월 워크숍을 개최, 세 부 계획안을 확정했다. 우선 교사 및 관련 자료 의 데이터화에 주력하고, 종단의 역사를 한눈 에 볼 수 있도록 연표 작업을 완료, 감수를 마 1부 프리젠테이션을 맡은 서병훈 작가는 "자 친 상태다. 또 사료 모집 포스터를 제작, 각 사

원에 배포하여 종단 승직자를 포함한 교도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록물을 집대성해오고 있다.

종보실 이선희 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원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뷰나 교도 면담, 사진 취재 등이 많이 지연되었으나, 내실을 기하는 형태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진행 해 왔다."며, "1차 원고가 완료되는 내년 봄부 터는 모든 종도들의 역사책이 될 수 있도록 사 원 방문을 포함한 다양한 만남을 통해 더욱 적 극적으로 발자취를 찾아 나설 계획이다."고 밝

내년 8월을 목표로 발간 준비 중인 50년사는 종단의 지난 반세기를 통해 한국 밀교역사를 정립하고 종단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이정표 가 될 것으로 교계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재원 기자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비상"

11월 27일, 종립 동해중학교 개교 53주년 기념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가 개교 53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7일 기념식을 거행하고, 창립 을 자축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교내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이사장 인선 정사 축사, 동해 중학교 송인근 교장 인사말과 총지종 장학생 5 명에 대한 장학금 수여, 10년, 20년, 30년 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으로 이루어졌다.

인선 정사는 축사에서 "오늘은 지역의 우수 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명문학교로 자 리 잡은 동해중학교가 개교한지 53주년이 된 뜻 깊은 날"이라고 정의하고, "힘든 시기일수 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서로에 대한 신 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높이 비

상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한 다."고 전했다.

총지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근속 교직원 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이준기, 허지민, 2학 년 고건우, 정연우, 3학년 정원석 학생 △10년 근속 이은진 영양사, 20년 근속 이항욱 수학교 사, 30년 근속 이종덕 과학, 김용민 체육 교사, 김진화 교감

이날 이에 앞서 학교법인 관음학사 193차 이 사회가 이사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이사 7명, 감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중학교 법인실 에서 개최되었다.

참석한 이사들은 2020년도 학교회계 3차 추 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통리원 종무원 법정 의무교육 전원 이수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등 필수 교육

서울경인교구회의 법천사에서



서울경인교구회의가 법천사(주교: 화령 정사)에서 지난 11월 17일 법천사에 서 개최되었다. 참가 스승들이 회의에 앞서 불공을 올리고 있다.

통리원장 종무원 대상 특강



적으로 진행 중인 종무원 교육 과정 중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인생 을 바로 보는 법'을 주제로 특별 강의를 했다.



불교총지종 종무원 전원이 2020년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했다.

간 1회 이상 필수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법령에 정 의무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 강제적으로 정한 교육이다.

통리원은 지난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노 고모두 이수했다.

무법인 H 소속 이승연 공인노무사를 초청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 법정 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연 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이 포함되는 법 통리원과 정각사 종무원 15명이 교육을 수강하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자비심으로 함께 하는 국회 만들기에 정진"

11월 18일 조계사, 21대 국회정각회 이원욱 회장 취임



국회의원 및 직원 불자들의 모임인 정각회가 지난 11월 18일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21대 국회 개원 및 신임 회장 취임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1대 정각회는 올 6월 창립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회 가 지연되면서 이날 개원 및 이원욱 회장 취임

진각종 제31대 통리원장에 도진 정사가 선출

됐다.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425회 임시 종의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장 소임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과 함께 국회 불자의원 들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각회가 나서 자비심으로 화합하고 함께 하 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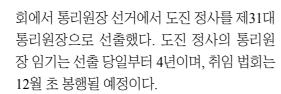
밝혔다.

정각회원들은 이헌승 부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서로 간 존중과 격려, 화합하며 삼보를 외호하고 정법을 선양하며 우리 민족의 정신적 보금자리인 가람을 수호해 부처님 법이 오래도록 빛나게 하겠다."며 "차별과 대립의 현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공존과 평화가 꽃피 도록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보장받고 언제나 자기계발의 기회를 얻 으며 위험에 처하지 않고 괴로움에서 즉시 구 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진각종 통 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과 정각회 이원 욱, 주호영, 이헌승, 조명희, 이수진, 이용, 유정 주, 김영배, 양정숙, 김병주, 소병철, 이정문, 김 형동, 황보승희, 민병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에 도진 정사

"화합과 소통으로 종무행정 힘쓸 것"



신임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1998년 본원심 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관행 신덕심인당 주교에 이어 현재 의밀심인당 주교를 맡고 있다. 전라

교구 종무국장, 전라교구청장, 대전교구청장, 제15대 종의회 사무처장 등을 두루 역임했으 며, 현재 제15대 종의회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도진 정사는 "법계의 인연으로 생각하고 열 심히 통리원장 직을 수행하겠다."며 "승단의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종무행정에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나마음의 등불 관성사 정계월 전수 편

큰 서원을 발해야 일체지(一切智)에 들어간다

선남자야, 보살은 모든 불법을 닦아서 현세를 정화하며 훌륭한 행을 쌓아 중생을 조복하고, 큰 서원을 발하여 일체지(一 切智)에 들어가며, 불가사의 해탈문에 자재하게 노닐며 불보리(佛普提)를 얻고, 큰 신통에 나타내어 일체 시방법계에 두루 머물며, 미세한 지혜로써 모든 겁(劫)에 널리 들어가니,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까닭에 마 땅히 착한 법으로 자기 마음을 붙들어 도우며, 법의 물로써 자기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모든 일과 경우에 자기 마음을 깨 끗하게 다스리며, 정진으로 자기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인욕으로 자기 마음을 평탄하게 하며, 지혜로써 내증(內證)하여 자기 마음을 결백하게 하고, 자재로써 자기 마음을 개발하며, 평등으로 자기 마음을 넓고 크게 하며, 십력(十力)으로 자기 마음을 비추어 살펴야만 할 것이다. 〈화엄경, 華嚴經〉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관성사 정계월 전수님은 만보사 안성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처염상정(處染常淨)

지혜의는

가톨릭에서 성인(聖人, Saint))은 고대 그리 스 로마의 다신교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 다. 절대적인 유일신은 평범한 인간과의 간극 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신과 다양한 인간과의 매개물로서 성인 신앙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에도 성인 숭배가 있습니다. 이슬람 신비주의로 수피즘(sūfism)이 있는데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인 숭배가 성립합 니다. 사실 성인 숭배는 신비주의와 밀접한 관 련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독자적인 교리체계를 가지고 있 습니다. 이러한 교리체계는 오랜 시간을 들여 서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생업에 바 쁜 일반 사람은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종교가 정치 권력과 손을 잡거나 권 력 자체가 되면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뚜렷하게 나뉘고 지배 복종의 관계로 변질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는 과거 의 역사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성직자 중심의 구조를 무너뜨리 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합일을 추구하기 때문 에 결정적으로 성직자 계급을 부정하기 때문입

이는 기성종교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기 에 기성종교는 신비주의에 대해 끊임없이 이단 의 낙인을 찍어서 탄압해왔습니다.

에서 콥트어로 쓰인 신약 성경이 발견되었습니 다. 이 문서는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복음서들 이었는데 기원후 4세기경에 묻힌 것으로 봅니 다. 신약 성경은 먼저 그리스어로 쓰였고 그것 이 당시 이집트 지역의 언어인 콥트어로 번역 되었는데 위의 문서가 그것입니다.

이집트는 초기 기독교의 중심지 중 한 곳이 었고 이슬람화 된 이후에도 소수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왔 습니다.

원후 367년 기독교 교리 투쟁에서 최종적으로 아타나시우스파가 승리하자 정경(正經, canon) 으로 채택되지 못한 문서들에 대한 탄압이 시 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묻힌 것들 중 일부가 바 로 나그함마디 문서인 것이죠.

초기 기독교의 한 흐름이 바로 영지주의(靈 知主義, gnosis)였고 이는 기독교 신비주의에 해당합니다. 영지주의는 외재적인 절대자로서 의 인격신(人格神, 인간처럼 감정을 가진 존재 로서의 신)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근원

으로서의 순수의식이자 존재의 원천으로서 일 자(一者)인 신성(神性)을 가리킵니다.

이는 인도의 우파니샤드의 요가 사상으로부 터 발전되어 나온 서양적 변형태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동양적 변형태는 다름 아닌 불교라 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하 나의 세계로 묶이게 된 서인도와 페르시아, 메 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지역의 문화가 융 합되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결합한 것이 영지주 의입니다.

신비주의는 신분이나 성별과 빈부에 상관없 이 누구나 신과의 합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에 그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특히 사회적 대변 동기에는 어김없이 종교적 신비주의가 등장하 여 사회변혁을 주도합니다. 중국사에서 후한말 에 등장한 도교 계통 황건적의 봉기와 원나라 말기에 일어난 미륵신앙에 바탕을 둔 홍건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폐쇄적 종교적 공동체주의로 전개되기도 하지요. 특히 후자의 경우 종교 지 도자의 카리스마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데 부정적으로 흐를 경우 신도들이 집단 자살 한 미국의 인민사원이나 우리나라에서 1987년 일어난 오대양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혜민 스님의 사건은 일종의 성인 숭배 신앙 과 맞닿아 있습니다. 욕망의 극대화를 추구하 1945년 이집트 나그함마디(Nag Hamma di) 는 시대의 흐름 속에 대중은 한편으로 무소유 의 청빈(淸貧)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불교 승려 의 경우 타 종교와 달리 특정 지역의 특정 종교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인물로 떠오르 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유를 극대화하려는 시대의 풍조 속에 금욕수행의 상징인 승려는 원하던, 원치 않던 대중의 호기심의 대상이기 쉽습니다. 욕망을 좇는 현대인에게 잠시 휴식을 위한 자기만족의 소비재로서 승려들이 이용되는 측면이 강한 것 이죠. 그러나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말 이집트의 기독교를 콥트교라고도 합니다. 기 그대로 수행자로서의 위의(威儀)를 지켜나가 는 것입니다.

> 혜민 스님이 대중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편의상 거처하는 장소가 무소유가 아닌 풀소 유라는 비난을 받지만 다른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승가로 되돌아가 수행에 전념하겠다는 스님의 말에 희망을 둡니 染常淨)의 또 다른 상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 4,5층

칼럼리스트 김태원

화음사 교도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연명의료 31

49재와 불교적 죽음 이해

법상 정사

49재는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열리는 법회 이므로 49재의 주인공은 바로 영혼이다. 49재 가 불교 의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우 리의 삶은 육신이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 기 때문이다. 49재는 죽은 후에 영혼이 윤회한 다는 '불교적 죽음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생 사학의 관점에서 영혼에 초점을 맞춰보면, 49 재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된다.

- 1) 영혼을 맞이한다.
- 2) 영혼의 업을 씻는다.
- 3) 영혼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 4) 영혼에게 불법을 전한다.
- 5) 영혼을 떠나보낸다.

따라서 49재의 5가지 절차는 불교적 죽음 의 례 형식이고, 49재에 담긴 콘텐츠는 '불교적 죽음 이해'다. 49재를 행한다는 것은 불교 의 례를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붓다 가르침을 일상에서 되새기고 실천한다는 뜻이다. 49재에 담겨있는 '불교적 죽음 이해' 는 심폐사와 뇌사 같은 의료현장에서 통용되 는 '육체 중심의 죽음 이해'와 크게 다르다. 불 교는 육체가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육 체가 죽으면 영혼은 업에 따라 다른 세상으로 떠나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고 가르치기 때문 이다. 49재가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는 49재의 주인공 영혼, 상실을 경험한 유가 족, 그리고 법회 참석자들이 죽음을 불교적으 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중 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육체 중심의 죽음 이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육체 중심으로 죽음을 이해하므로,
- 2) 죽으면 다 끝나고,
- 3) 영혼을 부정하고,
- 4) 죽음을 두려움이나 절망으로 간주하고.
- 5) 이런 죽음 이해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49재에 반영된 불교적 죽음 이해는 다음같이 요약된다.

- 1) 육체만으로 인간존재를 이해하지 않으므로,
- 2)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 3) 영혼을 부정하지 않고,
- 4) 죽으면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므로 죽 음을 절망이나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 5) 불교에는 죽음 관련 다양한 가르침이 충분 히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 사회에 적절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통용되는 심폐사와 뇌 사 중심의 죽음 이해와 49재에 반영된 불교적 죽음 이해는 크게 벌어져 있다. 육체 중심의 죽 음 이해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지 만, 불교는 죽으면 영혼이 업에 따라 다른 세 상에서 새 삶을 이어간다고 말한다. 49재는 육 신이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이 후 영혼이 남는다는 불교적 죽음 이해를 반영 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49재를 행하는 이유도, 불교 의례를 형식적으로만 재현하는 게 아니 라 죽음에 관한 붓다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기 고 실천하기 위함이다. 49재의 한 가지 유형, 영산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 재된 것도 죽음의례로서 영산재의 가치 때문

우리 사회는 육체 중심의 죽음 이해로 인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매년 약 28만 명 이 임종하는데 '불행한 죽음'이 양산되고 있 다. 따라서 49재에 담긴 불교적 죽음 이해를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활성화하여 육체 중심 의 죽음 이해를 치유하고, 불교적 죽음 이해를 보다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 죽음의 질과 함께 삶의 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심보이야기 14

제8식의 3가지 작용 삼장(三藏)

집착은 영원한 것 아냐, 수행에 의하여 정화 아뢰야식은 생명을 보존, 유지시키는 마음

보존한다는 뜻, 장식(藏識)

아뢰야식은 모든 업력을 함장(含藏)하고 보 존한다는 뜻으로 장식(藏識)이라고 한다. 그 리고 아뢰야식은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키 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아다나식(阿陀那識)이 라는 별명을 갖는다.

그리고 선업과 악업의 힘에 따라 과보를 바 꾸어 받아 출생하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이숙 식(異熟識)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아뢰야식은 다양한 성능을 갖고 있으며 이 식이 작용하는 모습을 자상(自相), 과상(果相), 인상(因相) 등 삼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들 삼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상에는 능장(能藏), 소장(所藏), 집장(執 藏)의 뜻이 있다. 능장은 눈, 귀, 코, 혀, 몸, 뜻 등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업력을 능동 적으로 보존한다는 뜻이고, 소장은 능동적으 로 훈습하고 있는 업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 여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집장은 말나식에 의 하여 집착되어진 것을 뜻한다.

말나식에 의하여 집착되는 동안을 윤회의 기간으로 하며 그 집착이 없어지면 윤회에서 해탈하게 된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것은 영원 한 것이 아니고 수행에 의하여 정화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과상은 아뢰야식이 업력에 의하여 태생(胎 生)과 난생(卵生)과 화생(化生) 등의 출생으로 과보를 받는 것을 뜻한다. 과보는 개인이 수용 하는 사회적인 과보가 있고 여타 생명체와 함 께 수용하는 사회적인 과보가 있다. 예를 들면 자연계는 공동으로 수용하는 공동의 과보라 고할수있다.

다. 중생각자가 조성한 업력은 아뢰야식에 보 이다.

존되었다가 인연을 만나면 정신과 육체의 행 동을 발생하는 것이며 자신의 몸과 자신이 사 는 세계까지도 창조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뢰야식을 종자식(種子 識)이라고도 칭한다. 이와 같은 아뢰야식의 삼상(三相)을 현재의 생활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공업과 불공업

인간의 행동은 아뢰야식 내의 업인(因)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이며 동시에 그 행동은 업 인이 되어서 아뢰야식 안에 보존된다. 그리고 속에 종자를 잘 집지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능장이란 아뢰야식의 입장에서 능히 종자 를 지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 고, 소장은 종자의 입장에서 아뢰야식에 종자 가 저장될 수 있는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붙인 이름이다. 이와 같이 능장 과 소장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아뢰야식은 종자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게 되고, 종자는 아 뢰야식 속에 저장되어 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 질 때에 아뢰야식이 종자를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능장과 소장으로 나누어서 설명 하고 있다.

집장은 윤회의 주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집장(執藏)이라 는 부분이다. 집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뢰야식

능장(能藏), 행동으로 조성된 업력을 능동적으로 보존 소장(所藏), 능동적으로 훈습되는 업력을 수동적으로 보존 집장(執藏), 말나식에 의하여 집착되어진 것을 뜻한다.

보존된 업인은 미래에 출행할 때 개인업(不共 공동의 업(共業)이 있다. 이러한 업력이 개인 과 공동의 과보를 받게 하며 모든 세계를 창조 하는 원인이 된다는 뜻에서 아뢰야연기(阿賴 耶緣起)라고 칭한다.

삼상(三相)중 자상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 게 살펴보자. 자상에는 세 가지의 작용이 있 다, 이 세 가지 작용이란 주로 아뢰야식의 작 용이 종자를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 으로 이것을 삼장(三藏)이라 한다.

삼장이란 세 가지로 종자를 저장할 수 있다 는 것을 말하며, 능장(能藏)과 소장(所藏)과 집장(執藏)을 말한다. 이중에서 능(能)은 주체 인상은 아뢰야식 내에 보존된 업인을 뜻한 가 된다는 것이며, 소(所)는 그 대상이 되는 것 시작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

않게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제7식이 자신 業)이 있고 여타의 생명체와 함께 수용하는 의 내면적인 자아로 집착하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집장이라고 한다. 근본번뇌가 일어나 는 근원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으며, 모든 집착 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 에 집장은 삼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설명된다.

> 따라서 능장과 소장은 종자와 관련되어 설 명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 집장은 제7식과 관계해서 근본적인 번뇌를 일으키는 대상의 원인으로서 아뢰야식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 집장은 제7식이 아뢰야식을 자아(自我)로 집착한다는 점에서 윤회의 주체가 되고, 삼계 (三界)와 육도(六道)의 고해(苦海)에 윤회를 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불교방송



월 1만원 이상으로 만공회 공덕주가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855-3000

2020년 BBS불교방송 만공회 출범 5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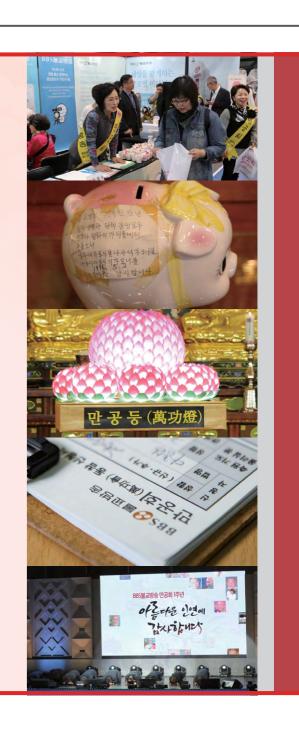
국내 유일의 불교 지상파이자 중앙 언론사인 BBS불교방송은 공익방송, 정론직필 등 본연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참된 말씀을 바로 펴는' 방송사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열린 마음의 혜안을 갖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지혜의 힘을 키워주는 방송!

'세상을 맑게하는 글로벌 미디어' BBS불교방송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월 1만원 이상의 후원가족 10만명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방송포교후원 공덕주를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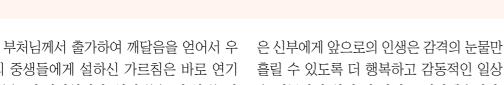
10만 명이 발심하면 2천만 불자에게 안정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공회 후원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BBS불교방송 포교불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인연(因緣)

"마음에 사랑이 생기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면 미움의 대상도 사라집니다."



리 중생들에게 설하신 가르침은 바로 연기 (緣起)의 법칙입니다. 연기(緣起)란 연(緣)하 여서 일어난다(起)는 것으로, 세상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는 진리입니 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서로 연관되어 있 고 서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만 하고 그렇지 못하고는 인과관계로서 상대적 인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저 사람이 미운 것이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니 저 사람이 사랑스러 운 것입니다. 애증(愛憎)은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상대가 내 마음에 따라 그 대상이 달 라집니다. 그것이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입 니다.

특히 사람의 인연 가운데 부부의 인연은 참으로 지중합니다. 천생연분(天生緣分)이 라 하여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어느 결 혼식에서 예식중간에 신랑 신부가 읽으면서 약속하는 인연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불국정 토(佛國淨土)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 신랑 신부의 인연의 편지를 잠시 옮겨보겠습 니다.

"옆에 있는 제 신부는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툰 저를 녹여준, 따뜻한 마음을 지닌 난로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하 고, 지나가는 길고양이에게도 다정하게 인 사를 건네는 이 사람의 따뜻한 마음씨에 반 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른 사람의 일에는 깊이 공감하고 먼저 나서 는 당신이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 지 못해 자주 눈물 보이는 여린 당신의 모습 을 잘 알기에 오늘 여기에 계신 하객 여러분 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쉼 없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신부를 위해, 하루의 일과를 먼저 묻고 신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눈물 많

흘릴 수 있도록 더 행복하고 감동적인 일상 을 선물하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로 다투더라도 먼저 사과하 고 안아주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 순간 표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제 신랑은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는 저를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지 탱해준, 뿌리가 깊고 든든한 나무 같은 사람 입니다. 나 홀로 서울살이에 외롭지 않도록

"남편은 마땅히 부인을 공경하고 부양해 야 한다. 바른 마음으로 존중하며, 항상 뜻을 같이 하고, 다른 여자에게 정을 주지 않으며, 보살피고 아껴야 한다."고 남편의 도리를 말 씀하셨습니다. 또 아내의 도리를 다음과 같 이 말씀하셨습니다.

법황사 주교 법우 정사

"부인은 남편과 남편의 일을 착하게 하고, 애정을 베풀며, 항상 온화하고 말이 유순하 며, 침실을 정돈하고 음식을 깨끗이 하여 공 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이 따뜻하고 화목해야 일체가 밝아져 부처님께서도 부부간 '마음 닦는 것' 강조

언제나 곁을 지켜주었고, 돌부리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치워주며 자신보다 저의 안위를 먼저 살펴주었던 배려에 감사해 결혼을 결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힘든 속내는 혼자 삭히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 툰 당신의 모습을 알기에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신랑의 웃음 뒤에 말로 표현 못 하는 그늘 이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며 당신과 더 자주 눈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쉼이 필 요한 순간,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순간, 인생 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마다 항상 당신을 믿 고 더 아끼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가 밝아질 수 있습니 다. 화목한 가정은 부부의 좋은 인연에서 가 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가정이 화목하고, 내 이웃과 다 정다감해진다면, 그 자리가 곧 불국정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이라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따뜻하고 부부 사이가 좋아야 일체가 밝아지는 법입니다. 이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가 지켜야 할 일을 이렇 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마음에 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부간 에 마음 닦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생기면 모든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모든 법이 멸한다." 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생기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면 미움의 대상도 사라집니다.

또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된다.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 여 행하고 곧 베풀면 괴로움을 받으니 수레 바퀴에 바퀴자국이 따르는 것과 같다. 마음 에 착한 것을 생각하여 행하고 곧 지으면 착 한 과보를 받으니 형체에 그림자가 따르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지은 대로 받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 다. 지은 대로 받는 것이 곧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깁시다. 부부인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물어가는 경자년 한해 인연법에 따라 잘 마무리하시고, 곧 맞이할 신축년이 우리 총 지인의 한해가 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하현주 박사의 마음 밭 가꾸는 이야기 자비정원(慈悲正願)④

고통은 행복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없애야 할 것 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성숙의 여정에서라면 또 기꺼이 겪어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행 복과 불행은 마치 쌍둥이 자매와도 같다는 아함 경의 비유처럼, 행복의 이면에 늘 그림자처럼 존 재하는 이 고통과 불행을 우리는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고 통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나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성숙한 태도일까?

자기몰입적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는 자신과 타인이 분리된 개체라는 환상 속에 안주하며 살아간다. 독립되고 견고한 자아 를 가진 우리 각자는 서로의 역사 속에서 분리된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간다. 견고하고 높은 자존 감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최상의 윤리 덕목으로 서 그 위용을 발휘하게 되었다. 양심보다는 자 존감 없는 것이 더 부끄러운 문화가 되었고, 자 기주장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도덕적 반전도 일상화된 지 오 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존감에 목을 매는 현 대인들이야말로 자존감의 기근 상태가 아닐까?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추구하고 수 집하기 위한 SNS에의 자기애적 몰두, 타인의 인 정 없이는 자기 자신의 선호조차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결핍된 사람들. 이 고질적인 자기중 심성, 자기몰입적 고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에게서만 문제를 찾고, 또 자기 자신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 그야말로 자기에게 중독된 인간으로 남아, 자기 중심적, 자기몰입적 고통 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We First)

저'(Me First)라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먼저'(We 도 모른다. First)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도 '나에게서 먼저'가 아니라 '우 리에게서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괴로운 순간 흔히, '나만 또 이렇게 불행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이렇듯 자신의 경험을 경험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나'와 연 관시키는 것을 자기참조적 과정(self-referential process)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안을 경험할 때, 그 불안이 자기 자신의 것이고, 그 불 안이 경험되는 출처가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나만의 고통이 아닌 우리의 고통으로

것을 말한다.

아니, 나에게 경험되는데 그 불안이 발생된 곳 이 내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그럼 다른 사람 이 나에게 불안을 주입했다는 말인가? 내가 다 른 사람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 렇듯 자명한 사실에 왜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지 고개를 갸우뚱하실 독자들이 있을지도 모르 겠다. 하다쉬(Hadash)와 동료들은 내적 경험들 을 '자기참조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체험적으로 '탈자기참조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치료적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즉, 내가 경험하 는 모든 현상들을, 그저 현상일 뿐 '나의 경험'이 라거나 '내가 만든 경험'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즉, '아, 나는 왜 또 불안해지지'하는 태도에서 ' 나'를 떼고, 지금 '불안이 경험되는구나'로 경험 하자는 것이다.

'자타일시성불도'의 염원으로

본 칼럼의 초반부터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 의 정서는 전염된다. 심지어 인지적 취약성마저 도 전염된다. 더 이상 우리가 독립된 개체로서 존 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심리학 연구를 통해 속 속 밝혀지고 있다. 내가 경험하는 지금의 이 불 안이, 내가 믿는 이 가치관들이 비단 나만의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현 상을 경험하면서 어찌 그것이 '나의 고통'이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공유하 고 있는 이 대기의 숨결처럼, 우리는 매순간 타 인의 고통을 함께 들이마신다. 타인의 목소리를 통해, 얼굴 표정을 통해, 그의 몸짓과 행동을 통 해서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만들어 내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무수한 조건들이 얽히고설켜 빚어낸 이러한 '자기 중독'의 폐해는 '나부터 먼 현상을 우리가 그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

> 나의 불안도, 슬픔도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기 는 하지만 오로지 나로부터 일어난 것만은 아니 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즉, 고통의 공유된 상태 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내 가슴만을 향해 있던 시선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자. 나의 고통이 아 닌 우리의 고통으로 바라볼 때, 우리 모두의 고 통이 동시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自他一時成佛 道의 염원이 우리를 채울 때, 자기몰입적 고통으 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된다.



도경스님의 수행법문

"어리석은 사람이 '고요하다'라고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고요해도 고요한 줄 알지 못한다."

저는 미얀마에서 수행하면서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고'에 대한 이해는 생기 지 않았습니다.

저의 스승께서는 지혜가 약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 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혼자 야외에서 경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것 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 으로 알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전 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아는 것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속된 존재의 이어짐이란 것이 '참으로 지겨운 것 이다'란 것이 한 순간 '확' 알아졌습니다. '지겹다.'라고 하 는 마음은 일반적으로 '화'의 마음입니다.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7>

로써 존재하는 것이 지겹다라고 깨달은 순간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절대의 평화, 절대의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그 때 존재가 '지겹다.'라고 이해한 마음이 바로 '고'에 대한 이해 의 마음입니다. '고'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완전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자신의 원인과 결과로 인해 열반을 향해 간다라고 스승들은 이야기 합니다. 붓다께서도 경전에서 존재에 대한 열정이 모두 식은 마음이 고통의 끝, 열반을 향해간다 라고 말씀하 시고 계십니다.

흔히들 '사마디'를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마디 그런데 한 순간 마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지겹다!' 는 집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디는 마음의 고요한 성질입니다.

> 그러한 고요함을 가져오는 원인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 나는 '집중명상'을 통한 고요함이고 또 하나는 '지혜명상'을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이런 고요함을 '까니카 사마디', 지혜명상을 통한 고요함이 라고 합니다.

고요함이 있을 때는 그 고요함과 더불어 마음의 활발함도 함께 있습니다. 대상을 자유롭고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지 만 대상에 대한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마음은 반응하지 않

대상을 단지 대상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은 고요합 니다. 이렇게 고요함과 활발함이 함께 균형있게 개발되어갑 니다. 위빠사나 수행에서 진정 좋은 마음은 균형이 맞는 마 음입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이룬 마음에서 지혜가 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수행에서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수 행자가 수행 중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 대체로 그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런 상태를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반복

날 오후에 법당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수행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 때 천장에서 '툭, 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그 순간 '비가 오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는 순간 마음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 대상을 바르게 보기 때문에 생기는 고요함입니다. 이런 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비가 온다고 안 순간 마음이 자신에게 프로그램된 대로 자신이 알아서 마음의 상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 다. 자신의 성질에 따라 조건이 되면 자신의 작용을 하는 것 입니다.

> 수행 중 마음이 고요하다 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경계하십 시오. 그리고 고요함의 반대되는 힘인 마음의 활발함을 체 크해주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깨어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활발한지, 대 상을 얼마나 많이, 분명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마음의 활발함이 약하다 라고 생각되면 질문과 조사를 통해 서 마음의 활발함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마음의 활 발함이 키워지지 않으면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걸으면 몸이 활발해지고 몸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활발해집 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행센터에서 의 수행 시간표에 좌선과 경행을 교대로 두는 것은 바로 마 음의 활발함과 고요함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좌선 중 고요하다라고 느껴졌다면 이미 마음의 균 형은 무너졌습니다. 수행 중 좋은 마음의 성질들이 함께 균 형 있게 개발되면 어느 한 가지 성질이 두드러지게 알아지 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활발함의 힘이 커지면 고요함의 힘 도 함께 커져서 서로를 제어해서 어느 하나가 두드러지지 않게 합니다. 지혜의 힘이 커지면 신심의 힘도 함께 커져서 어느 하나가 두드러지지 않게 합니다.

통찰의 지혜가 날 때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마 음의 상태가 아주 평범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 때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의 요소들, 신심, 노력, 지혜, 고요함, 알아차림 의 힘들이 함께 균형 있게 개발되어 어느 하나도 두드러지 지 않아서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가 더 깊은 통찰지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미얀마에서 스승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고요 하다, 평화롭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행 하면서 고요하다 라고 느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 렇습니까?' 스승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요하다 라고 느낄 10월이 되었고 비가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마음이 가벼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고요하다 라고 말한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관, 활발함과 고요함의 균형이 중요 신심, 노력, 지혜, 고요함, 알아차림으로 통찰지 생겨나

그런데 그 때는 화가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 지혜가 그것 통한 고요함입니다. 을 알았습니다. 일어나는 것, 존재하는 것이 전혀 바랄 바가 아니다 라는 것이 마음에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런 앎으로 인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해졌고 행복해졌습니다. 지혜

집중명상은 하나의 대상에 끊임없이 마음을 두어가는 수 행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계속적으로 마음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그 대상과 밀착합니다. 밀착의 밀 도가 점점 높아지면 이 마음은 다른 마음작용들을 누르게 됩니다.

생각하는 마음작용, 느낌 아는 마음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이런 고요함을 '아빠나 사마디', 집중 명상을 통한 고요함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명상에서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대상을 봅니다. 꽃 과 오물이라는 시각적 대상이 있을 때 꽃과 오물이라는 것 은 관념적 해석일 뿐이고 실재는 보일 뿐이란 것을 이해해 갑니다. 이 두 가지가 보인다는 실재하는 성질로써는 같다 는 이해가 생깁니다.

보인다는 실재하는 성질은 같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꽃과 오물을 보게 되면 꽃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오물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적으로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는 고요함을 추구 하는 내적 경향이 생겨납니다.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적 경향이 있고 조건이 형성되면 마음이 스스로 그런 고요함을 추구하게 됩 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비가 오면 수행이 안 된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고 수행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가 오니까 수행 이 안 되는구나. 공기가 습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모양이다.' 비가 우기 동안 계속 왔고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계속 했 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그 생각을 믿기 시작비 가 오면 수행이 안 된다는 것이 내 마음에 굳게 프로그램된 것입니다.

워지고 밝아져서 수행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혜 있는 사람은 고요해도 고요한 줄 알지 못한다.'





🕽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만다라 봉안 대법회

총기 31년(2002년) 12월 12일

장소 : 총지사 서원당

참석: 스승 및 교도 1,000여 명 및 외부 귀빈 15명 참석

신규스승 관정수계

총기 32년(2003년) 12월 16일

장소: 대구 개천사

신규 스승 명단 : 법경, 화령, 법우, 록경, 우인, 안성,

금강륜, 인지심, 법수연, 보명심, 정계월

총 11명

내용: 종조전인 원정기념관 개관 장소: 총지사 서원당, 총지사2층

참석인: 종령, 통리원장, 승단 스승,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스님, 불교방송 이성언 사장, 교도 350여 명

종조전 원정기념관 개관

총기 33년(2004년) 12월 2일

성화사 득락전 가지불사

총기 37년(2008년) 12월 11일

내용: 득락전 3존불 (아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총지종 상조회 발족

총기 38년(2009년) 12월 7일

내용: 총지종과 효사랑복지재단(주)이 업무 협조를 하여 총지종 상조회 발족

룸비니 티벳 사원 개원 법회 참석

총기 39년(2010년) 12월 6일 ~ 12월 16일

장소: 인도, 네팔 룸비니

참석인: 지성, 인선, 화령, 김종인 외

돌아보는 2020

고통과 인내의 2020년, '창종 50년' 내실 다진 한해

코로나19 대유행 속 법성사 신축헌공, 부처님오신날 연기, 비전 사업 추진 등

2020년도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지옥 속에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 과 몇 주 만에 우한지역을 마비시켰고 중국 전역을 패닉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 미증유의 질병은 곧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이 로 인해 종단도 '제10회 세계재가불자대회'를 비롯한 총기 49년 다수의 주 요 사업을 연기하거나 최소화하기에 이르렀다.

'마스크 법회'의 시작

처음으로 종단은 코로나19 관련하여 3월 23일 전국 사원에 공문을 보내 전염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주문하고, 각 사원은 모든 법회를 중단, 교도들은 개인 정진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봉행된 2월 13일 부산의 힐링 도량으로 다시 문을 연 법성사의 신축 헌공가지불사는 2020년도 유일하게 마스크 없이 치러진 마지막 행사로 기록되고 있다.



2월 13일 부산 법성사 신축헌공가지불사 봉행

불교계는 코로나19 예방에도 적극 앞장선다. 피해지원 성금 모금을 가장 먼저하는 한편 가장 큰 축제인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도 한 달 연기했다.

불교총지종도 3월 16일 불교TV 생방송 모금캠페인에 3천만 원을 희사했으며, 4월 26일이 돼서야 서원당을 개방하고 첫 '마스크 법회'를 열었다.

부산경남교구 승직자들도 '국운융창과 국난극복 기원 대정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며, 호국불교 종단으로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거리의 보살로 나선다.



3월 16일 불교TV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 모금' 3천만원 희사



4월 26일 총지사 자성일 첫 '마스크' 법회



5월 6일 부산경남교구 스승 '국운융창과 국난극복을 위한 기원' 대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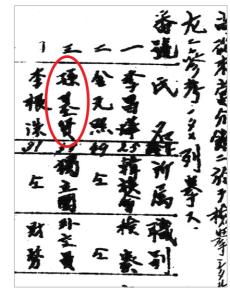
재점화된 종단 도약

코로나로 침묵 된 세계, 창종 반세기를 앞둔 불교총지종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갈망은 잠재우지 못했다. 지난해 제19대 통리원이 출범하면서 재점화된 종단 도 약에 관한 비전 사업은 차근차근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특히 종조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편찬 과정에서 7월에는 대성사 부친 손기현 선생이 2016년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항일 운동을 주도하고, 독립단 외교원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등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역사의 빛을 밝히는 데 앞장섰음이 확인되었다. 종조 원정 대성사의 창종 정신을 되찾고 갈무리하는 중요 성과로 평가된다.



종조 원정 대성사의 부친 손기현 님



1920년 10월 6일 일본 외무성 체포보고서



9월 18일 청와대 초청 통리원장 인선 정사 등 불교계 지도자 간담회

창종 50년을 준비하는 종단은 현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BBS불교방 송, BTN불교TV 이사 종단으로서 불교계 내에서 그 위상을 높여왔으며, 통리원 장은 지난해에 이어 9월 18일 청와대에 초청되어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는 등 한국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종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자비행으로 이웃과 함께

올 한해는 주요 법회와 종단의 사업, 각 사원 교도 간의 대중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형태로 운영이 되었던 한해이지만, 일불 제자라는 본심을 놓지 않 고, 자비행으로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여정이기도 했다.



6월 26일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운영 수탁



7월 31일 서울경인교구 '코로나19 극복발원 성금' 기부



9월 1일 부산경남지회 태풍 피해 이웃돕기 성금 기탁



11월 23일 네팔 부메학교 학생들의 새 교복 착복식

종단이 5월에는 서울 성북구 구립 노인복지시설 석관실버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 6월부터는 초등생 돌봄을 위한 강남구 다함 께키움센터(세곡)를 수탁하여 영유아와 어린이에서 어르신 복지까지 이르는 10개의 산하 기관을 두면서 평생복지 구현에 한발 다가섰다.

또 교도들도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는 일이 많았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서울경인지회는 7월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에, 정각사 자비회 회원들은 8월 동래구청에 성금을 전달했으며, 부산경남지회는 9월 태풍으로 피해 이웃을 위해 해운대 구청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9월에는 종단과 정각사 신정회, 자비회가 함께 멀리 네팔 안나푸르나 산기슭 부메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선사하기도 했다.

불퇴전의 수행과 교화

코로나가 주춤한 사이 수행을 점검하고, 승단 의사 결정을 위한 추계강공회가 10월 28일 1박 2일간 개최되었다. 종령 법공 예하는 전국 승직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는 종단의 미래는 '소통'이다 강조하고, 소통을 통한 불퇴전의 수행과 교화를 독려했다.

이날 승단총회에서는 총지종 승직자 후보의 공개 모집을 결의하였으며, 보살의 행원으로 중생제도를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종령 예하는 12월 24일 창교절 유시문을 통해 "인간의 심성과 마음을 수양하는 일은 시대가 달라졌어도 바뀔 수 없으므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생이 다하도록 진언을 지송하라."며 수행과 불공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11월 중반에 들며 다시 전국적인 코로나 펜데믹 속에 12월 창교절 기념 및 송년 법회 등 법회와 행사가 취소 또는 대폭 축소되는 가운데 총기 50년의 새 아침은 조용히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와 제자리를 찾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지심으로 기대해 본다.

박재원 기자



10월 28, 29일 총기49년 추계강공회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47)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22_최종회)



법경 정사(정각사 주교/ 철학박사/ 동국대 강사)

중생의 마음, 60심

총지종보가 1995년에 발행된 이후 로 매달마다 원고를 빼먹지 않고 써온 지가 25년이 되었다. 강산이 두 번 바 뀌고도 반이 지났다.

종단에 입문하여 1990년 교무생활 을 시작으로 연구원을 거쳐 지금은 승 직자로서 전법활동을 하며 종보에 밀 교를 연재해오고 있다.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참으로 오랫동안 글을 써왔다.

이제 밀교연재를 끝으로 글 쓰는 일 을 잠시 내려놓을 생각이다.

장기간 글을 써왔던 탓에 피로감이 크다.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밀교연재는 '중생의 마음'을 끝으로 완전히 마감된다.

마지막 글은 '중생의 마음'을 갈무 리하고자 한다.

중생의 마음은 여러 가지다. 그 수 가 하늘의 은하수와 같이 많고 항하사 (恒河沙) 모래수 만큼이나 된다. 헤아 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대일경』에서는 중생의 마음을 60 심으로 설명한다. 그 마음은 하나하나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를 『대일경소』 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이 육십심은 어떤 때에는 수행자의 본성에 치우치는 것이 많다. 혹은 도 를 행하려고 작용하는 마음에 따라 선 세(先世)의 습이 발동하여 한때에 다 양하게 일어나거나 혹은 차례대로 생 긴다. 언제나 마음을 머물게 하여 깨 어 살피면, 자연히 정보리심(淨菩提 心)에 따를 수 있다.'

중생의 60가지 마음은 수행자 자신 이 지니고 있는 본래 성품에 따라 일

어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60가 지 마음 가운데 하나요, 시기 질투심 이 많은 사람에겐 그러한 종류의 마음 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은 모두 본인 의 숙업(宿業)과 습관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가며 일어난다.

그러나 마음을 정(定)에 머물게 하 여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 깨끗한 마음 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정보리심(淨 菩提心)이다. 정보리심에 이르고자 한다면, 60심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 해나가야 한다. 『소』에서 이렇게 설 하고 있다.

'만약 아사리가 제자를 위하여 마음 자리를 평평하게 다듬으려면 하나하 나 이를 가려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본성(本性)은 본래 청정하지만 60 가지의 망심(妄心)에 덮여 있으므 로 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정보리

심(淨菩提心)이다. 망심을 없애는 길 은 출세간(出世間)의 지혜를 증득하 는 것이다. 출세간의 지혜는 제법실상 (諸法實相)을 깨닫는 것이오, 종국에 는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이다. 자 신의 마음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망심(妄心)

執)이라 한다. 삼망집을 초월하는 것 이 정보리심이오, 지혜의 증득이다.

『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한 생애에 이 삼망집을 벗으면, 한 생애 에 성불한다.'

지혜의 증득이 성불이오, 성불은 다 름 아닌 망심(妄心)에서 벗어나는 것 이다. 삼망집을 초월하는 것이다.

삼망집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의 망집(妄執)으로, 추망집

(麤妄執), 세망집(細妄執), 극세망집 (極細妄執)이다.

중생의 마음은 탐내고, 성내고, 어 리석고, 교만하여, 의심하는 다섯 가 지의 근본번뇌를 바탕하여 여러 가지 로 나타난다.

그 다섯 가지 근본번뇌가 바로 탐 (貪), 진(瞋), 치(痴), 만(慢), 의(疑)이 이 망심을 밀교에서는 삼망집(三妄 다. 이 근본번뇌는 무명(無明)에서 비 롯되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번뇌 (五煩惱)를 일으키고, 다시 60가지의 망심을 일으킨다. 곧 무명에서 중생의 망심이 생기는 것이다.

> 무명(無明)에 연(緣)하여 망심이 생 기(生起)하는 것이다. 마음에도 연기 의 진리가 들어있다.

이와 같이 탐, 진, 치, 만, 의(貪瞋痴 慢疑)의 번뇌에서 벌어지는 60심(心) 을 망집(妄執)이라 하며, 이를 추망집, 세망집, 극세망집으로 나눈다.

추망집은 나라고 하는 아집(我執) 이다. 그릇된 소견이다. 세망집은 일 체존재에 대한 망상(妄想)이다. 극세 망집은 중도(中道)의 진리를 깨치지 못하는 무명(無明)이다.

무명(無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 어나는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진리에 대한 무지(無知)요, 일체존재 에 대한 그릇되고 망상으로 일으킨 착 각이다.

이를 벗어나는 수행의 길은 바로 팔 정도(八正道)이다. 즉 망심(妄心)의 삼망집(三妄執)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중도(中道)의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오,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이 즉신성불(即身成佛)이다. 이 몸 그대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정성준 교수의 일교 인물史

여성 성취자 락슈민까라

락슈민까라는 「84성취자전」에 드물게 보는 여성 성취자이다. 그녀는 우디야나의 왕인 인드라부띠왕의 여 가져온 재산을 지역주민들에게 뿌리 동생이었다.

왕족이었기에 호사를 누리며 고귀 하게 자랐지만 유명한 성취자 깜발라 로부터 배우고 밀교를 익혔다.

인드라부띠는 그녀를 잘렌드라의 아들인 랑까의 왕에게 시집 보냈는데 랑까에 도착한 그녀는 랑까뿌르의 주 은 고기를 가지고 그녀를 맞이하였다. 불교도의 환경에서 성장한 락슈민 했다.

까라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혼 절하였다가 깨어난 뒤 자신이 혼수로 고 장신구는 시종에게 주었다.

그녀는 열흘 동안 아무도 방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옷을 벗어 던진 다 음 온몸에 재를 바르고 미친 흉내를 내

왕은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 애를 썼 으나 그녀는 치료를 거절했다. 락슈민 민들이 비불교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 까라는 마침내 랑까뿌르를 탈출해 공 다. 더욱이 왕은 동물들을 사냥하여 많 동묘지에 살면서 자신이 스승으로부 터 배웠던 공부를 성숙시키는데 전념

7년 후 그녀는 싯디를 얻었는데 오 로지 왕실의 청소부만이 알아보고 그 녀의 가르침을 받았다.

어느 날 왕은 사냥을 나섰다가 숲에 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우연히 락슈 민까라가 거주하던 동굴에 이르게 되 었다.

왕과 수행원들은 그녀를 보고 처음 엔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동굴에 들어서니 광명으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여성수행자들이 그녀를 공경하고 있

이윽고 왕은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속에 알지 못할 공경심이 생겨 락 슈민까라를 다시 찾게 되었다. 왕이 가 르침을 청했을 때 그녀는 게송으로 답 했다.

윤회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존재하는 것들에 행복이나 축복은 없다. 탄생, 늙음, 죽음, 신이나, 가난한 자마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스스로에 의해 속박된다.

탐진치의 세 가지 악이 운명적으로 내면 안에서 고통을 이끈다. 아무리 여기저기서 욕망을 채우더라도 언제나 배고프기만 하다. 그대는 불과 한냉의 영원한 소통 속에서 헤매게 된다.

왕이여. 끝내 해탈의 행복을 구하소서.

그녀는 왕에게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 대신 제자인 청소부가 왕의 스 승이 될 것을 말했다. 왕이 락슈민까라 에게 청소부의 소재를 묻자 청소부는 많은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을 터이니 밤에 찾아가라 하였다.

왕은 많은 청소부 가운데 스승이 될 자를 찾아 왕관을 씌우고 가르침을 청 했다. 청소부는 왕에게 관정을 내리고 제자로 맞이하였다.

왕은 모든 것을 버리는 혹독한 수행 끝에 싯디를 얻어 랑까뿌라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였다.

특히 와즈라바라히의 수행단계를 가득차 있다. 수행자들에게 가르쳤고 이후 현생의 몸을 가진 채 다까의 세계로 전생(轉 生)하였다.

밀교 시대의 교학은 간결함을 지향 각이 든다.

하고, 수행 방편은 인간의 다양한 의식 에 맞추어 풍부하다.

한국불교는 먹을 것은 부족한데 수 저만 잔뜩 쌓여있는 것에 비유된다.

동북아지역을 거치면서 중국의 방 대한 종학을 떠안고, 선수행은 근기를 무시한다. 인도불교 수행차제의 교학 이 온전히 살아야 선불교의 위상도 마 련된다.

사냥을 좋아했던 잘렌드라의 아들 은 아내와의 비극적인 운명을 극복하 고 왕의 아만을 버리고 청소부를 스승 으로 모시는 어려운 일들을 해냈다.

락슈민까라는 스승 깜발라로부터 배웠다. 때문에 그녀의 게송은 붓다가 설한 무상과 고의 간곡한 가르침으로

락슈민까라의 비극적 운명과 왕위 를 포기하는 대비가 한편의 드라마로 꾸며도 좋을 절절한 사연이 아닐까 생

수계사 교도



착한가격 좋은품질! 정품정량!

대 표

최병철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242-58

054-745-5804 / 054-745-3083

핸드폰

010-2877-6137



종립 동해중학교 학부모 불자회 '반 야회(회장: 권윤희)'가 지난 11월 23일 2층 책마루 도서관에서 회원 29명이 참 석한 가운데 11월 정기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 지도 법사 법선 정사 는 초발심자들을 위해 전통 사찰이나 사원을 방문할 경우 자주 접할 수 있는 '법구'를 소개하고, 의미에 대해 법문

법선 정사는 "불교의식에는 많은 법 구가 사용된다."고 전제하며, "범종은 종소리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의

'한알, 한알에 정성과 서원을"

종립 동해중 '반야회' 염주 꿰기 법회

고통을 덜어주고, 법고는 축생을, 목어 는 물고기를, 운판은 하늘을 나는 조류 들을 제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불 교 문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도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염주는 불교의식 때 사용되는 법구이며, 손에 들고 하나씩 넘기며 염 불을 하거나 기도할 때 번뇌를 없애고 정신을 집중할 때 사용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법회 후 반야회원 참가자들은 '염주 꿰기'를 함께 했다. 권윤희 회장 이 직접 준비해온 염주 알로 각자 손목

에 맞도록 단주로 제작했다. 참여 회원 들은 1시간가량 개인 서원을 담아 한 알 한알 염주를 꿰어 제작을 마치고 회 향을 했다.

권 회장은 "반야회는 매달 넷째 주 동해사 서원당에서 정기법회를 하는 데, 법석이 모자랄 정도로 예년에 비해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서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을 준비 중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 해는 법회를 자주 열지 못해 내년을 기 약해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 박재원 기자

집과 몸

새벽 빗소리에 잠에서 깼다. 밖은 아 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잠결에 일어나 베란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 았다. 늦가을 비 치고는 제법 많은 비 가 내렸다. 서울 하늘에 낮게 내려앉은 먹구름이 연신 빗줄기를 지상으로 내 려보냈다. 여름 장마 때 그렇게 쏟아붓 고도 더 쏟아낼 게 남았단 말인가. 넘 치는 곳이 있다는 건 어딘가 부족하다 는 것이다. 장마가 있으면 가뭄이 있 고,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다. 내가 누 군가를 지나치게 자주 만나면 누군가 는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을이 물러가면 겨울이 찾아오고, 세상은 그 렇게 균형을 맞춘다. 이런 이치를 법정 스님은 "순환의 법칙, 이 우주 질서가 계속되는 한 지구는 살아 숨 쉰다."고 했다.

열린 베란다 문으로 틈입한 빗방울 이 차가웠다. 지상으로 가다가 불쑥 손 을 내미는 불청객 같았다. 흐릿한 사물 들은 겨우 형체만 유지하고 있었다. 가 로등 불빛에 스치는 빗줄기가 제법 거 셌다. 불청객의 젖은 손을 뿌리치고 베 란다 문을 닫고 방에 들어와 부족한 잠 을 마저 청했다. 깜박 잠이 들었는데, 휴대전화 자명종이 울렸다. 아들을 깨 워야 할 시간.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려도 올해 대학에 들어간 아들은 일 주일에 두 번 학교에 갔다. 주로 비대 면 수업을 하지만 실습은 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빗줄기가 거셌지만, 아들은 군소리 없이 학교로 향했다. 다 음은 아내 차례다. 출근 준비를 서두르 던 아내가 갑자기 소리쳤다.

"여보, 빨리 와봐. 베란다가 한강이 야. 슬리퍼가 둥둥 떠다녀."

벌떡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보니, 금 방이라도 거실로 물이 들이칠 것 같았 다. 분명 새벽까지만 해도 괜찮았는 데…. 앞뒤 가릴 것 없이 뛰어들어 손 으로 물이 빠지는 홈통을 살펴보았다. 물이 빠지는 홈통의 틈이 막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안에서 꽉 막혔다. 몸과 마음에 막힌 데는 없는지 '맑은 가위로 홈통 안을 쿡쿡 찔러보니 비닐 물'에 나를 비춰볼 일이다. 같은 게 막고 있었다. 몇 번 찔러보다 가 깊게 찔러 위로 들어 올리며 당겼

다. 물속에 손을 넣어 더듬으니 틈으로 무언가 삐져나왔다. 끊어지지 않도록 살살 잡아당기자 무언가 딸려 나왔다. 옥상에서 많이 보던 거였다. 옥상에 칠 한 녹색 방수액 굳은 게 물이 내려가는 홈통을 꽉 막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막힌 것을 빼내자 물 빠 지는 소리가 들렸다. 물은 작은 틈으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물 내려가 는 소리가 마치 집이 트림하는 듯했다. 좁은 틈으로 빼낸 방수액 굳은 게 거의 1m는 되었다. 이런 게 막고 있으니 물 이 막히는 게 당연했다. 늦게 발견했다 면 우리 집뿐 아니라 윗집도 물에 잠겼 을 것이다. 하마터면 늦가을에 이재민 이 될 뻔했다.

문득 집이 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 다. 베란다를 통해 내려가야 하는 물이 꽉 막혀 흐르지 못한 것은 집이 아픈 것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먹기만 하고 배설을 못 하면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 겠는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 는다면 집은 또 얼마나 갈증에 시달리 겠는가.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집이 춥 다면 몸은 또 얼마나 춥겠는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자연스럽게 망가진다. 내 몸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 하면 고장이 난다. 건강한 육체에 건 강한 정신이 깃드는 법이다. 부처님은 "세상의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은 우리의 몸 자체에 있다."고 하셨다. 또 한 "음욕이나 성냄, 배고픔, 공포심 등 은 다 몸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 통"으로 "우리의 몸은 곧 중생의 온갖 고통과 재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 하셨다.

살아 있는 것이 고통이겠지만,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똥을 누고 싶으면 똥을 누고, 몸이 더러워지면 씻는 이 모든 게 행복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몸은 괴롭지 않겠는가. 오늘 탁한 물을 빼내 아픈 집을 고쳤듯, 내

시인 김정수

잠원햇살 '벽면녹화' 조성

푸르고 건강하게 생태친화 본격화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 산하 서초구립 잠원햇살어 린이집(원장: 김선희)이 최근 원내에 공기정화 능력이 있는 식물로 벽면녹 화를 조성하고, 도심 속 생태 친화적 보육환경 개선을 본격화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거점형 생태친화 어린이집'에 선정된 잠원햇 살어린이집이 서초구청의 지원으로 지난 10월 중순부터 추진해왔으며, 관 리 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상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미세먼지 수치 변화 를 조사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 어질 계획이다.

김선희 원장은 "본원에 설치한 벽면 녹화의 공기정화 효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 하고 있다."며 "실내에서 활동할 때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맑은 공기와 생태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잠원햇살어린이집은 '근린공원 에서의 자연 친화적인 놀이 활동', '외 부 텃밭 상자에서 직접 유기농 채소를 기르고 수확하는 활동', '전통 세시풍

속 및 절기와 관련된 전통놀이 활동 등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아이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전서호 기자



재단(이사장 : 인선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간 활용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층 나석원)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강의실을 최대 인원 33명까지 이용 가 로 운영할 계획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승 능한 공간으로 확장했다. 2층 강당과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 강기 설치 등 환경개선 공사를 마쳤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또 효율적인 공

어르신들 편의, 안전 '대공사'

석관실버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등

복도를 통합·확장해 새로운 다목적홀 로 구축하여 이동 동선에서 발생하는 마찰, 소음 등 수업 방해 요소를 줄여 서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2층 테라스는 센터 이용자의 편 의를 위한 '힐링 쉼터'로 조성하였으 며, 향후 센터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일부터 1층에서 자율이용 프로그램 개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주민편의시설 강을 시작했으며, 현재 바둑, 장기, 두

나석원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더욱 유롭게 가능하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센터를 이 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 이며 "하루 빨리 코로나가 잠식되어 더욱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서 소통하 고 싶다."고 전했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지난 10월 14 뇌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이용이 자 전서호 기자



후원에 감사합니다

10월 21일 ~ 11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건화사	법상	11/20	20,000	동해사	법선	11/20	10,000	수인사	정순득	10/26	10,000	지인사	승효제	11/13	10,000
관성사	황성녀	10/27	10,000	미마위세곡 기움센터	김민주	10/23	50,000	실보사	이순옥	10/22	10,000	초록	이지희	10/26	50,000
	인선	11/20	20,000		문주하	10/24	10,000		박성호	10/22	10,000	어린이집	강혜란	10/26	10,000
관음사	김정희	10/26	10,000	/ [삼센니	권민경	10/26	10,000	실보사	박현정	10/30	10,000	총지사	김정환	11/1	10,000
	법공	11/20	10,000		정정희	10/28	5,000		연화법	10/31	10,000	중시시	최해선	11/7	10,000
	공덕성	11/20	10,000	밀인사	김재영	11/3	10,000		정혜정	10/31	10,000		원당	11/15	10,000
	상지화	11/20	10,000		김광혁	11/3	10,000	실지사	유승우	11/6	10,000		묘심해	11/15	10,000
	수증원	11/20	10,000		최주락	11/18	10,000		이도현	11/6	10,000		홍수민	11/16	10,000
	밀공정	11/20	10,000	법천사	반야심	11/2	10,000		이서현	11/6	10,000	총지사	최영아	11/16	10,000
	총지화	11/20	10,000	법황사	유승태	11/7	10,000		덕광	11/20	10,000	종시사	박정희	11/18	10,000
	법수원	11/20	10,000		법우	11/7	20,000		보현	11/20	10,000		신용도	11/18	10,000
기로스승	선도원	11/20	10,000		인지심	11/7	20,000	어린이집 양지	지그서	10/23	50,000		이수경	11/18	10,000
	법지원	11/20	10,000	벽룡사	승원	11/20	10,000		10/23	50,000		신현태	11/18	10,000	
	일성혜	11/20	10,000		묘원화	11/20	10,000		정도수	10/27	50,000	포레스타7	최유정	10/23	50,000
	사홍화	11/20	10,000	사원명 무기명 석관실버 복지센터	이진승	10/26	10,000	어린이집	007	10/27	30,000	어린이집	4π'6	10/23	50,000
	안주화	11/20	10,000		남영애	11/2	30,000	오천사 일원 어린이집	반야회	10/26	50,000	5	무명씨	11/3	10,000
	진일심	11/20	10,000		박필남	11/16	10,000		하재희	10/26	50,000		무명씨	11 <mark>/</mark> 4	10,000
	시각화	11/20	10,000		이희우	11/17	20,000		구미자	11/2	10,000	화음사	강점이	11/4	10,000
	최상관	11/20	10,000		김갑선	11/19	10,000		최자영	11/9	10,000		강승민	11/10	5,000
	연등원	11/20	10,000		김여진	10/26	10,000	일원 어린이집	이현직 11/10	11/10	11/10 10,000		최영미	11/10	50,000
단음사	전명환	11/6	10,000		검색신 I	10/20	10,000		167	11710			우인	11/13	10,000
다듬니	김경남	11/10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나석원	10/26	100,000		노점호	10/23	10,000		보명심	11/13	10,000
단향사	이수형	11/10	10,000		476	10/20		정각사	탁상달	10/28	10,000		무명씨	11/17	10,000
	김진화	11/9	10,000		김윤수	10/27	10,000	071	안한수	11/8	10,000	힐스	곽방은	11/10	50,000
동해사	송인근	11/20	10,000	성화사	오순자	10/27	20,000		탁상달	11/12	10,000	어린이집	775	11/10	30,000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②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본생경〉에서 얻은 교훈 ① "거기는 더 좋은 것이 있으리라"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윤회 설이다. 윤회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져서 선한 사람은 선한 과보 를 받아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과보를 받아서 나쁜 곳에 태어난다는 설이다. 불교에서는 천상, 인간, 수라, 동물, 아귀, 지옥 의 6도 윤회를 말하는데 동물, 아귀, 지옥 이 셋이 삼악도이다.

불교의 윤회설은 훗날 부처님에 대한 무수 한 전생이야기를 낳게 되었다. 왜냐하면 부처 님은 금생에만 닦아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 라 무수한 생을 거듭하는 동안 수행을 했기 때 문에 부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전생에 수행자로서의 삶을 보살이 라 칭한다. 부처님의 전생 보살로서의 무수한 삶의 이야기가 수록된 경전이 <본생경>이다.

만생물이 동등한 윤회설

<본생경>을 보면 부처님은 전생에 정말 다 양한 존재였다. 목신(木神)이기도 하고 왕이 기도 하고 상인이기도 하고, 사슴이나 사자이 기도 하다. 윤회설이 갖는 생태적인 의의는 인 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 특히 인간과 동물 을 동등하게 윤회하는 존재로 본 것이다.

그래서 동물에 대할 때 전생에 나의 부모였 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죽어서 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동물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 본생경>에도 자연을 오직 이윤을 위한 착취 의 대상으로 끝없이 파헤치는 인간의 잘못을 경책하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 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어떤 상인의 집에 태어나 성년이 되어서는 대상(大商)의 주 인이 되었다. 그는 바라나시에서 상품을 사들여 수레에 가득 싣고 많은 상인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어떤 험난한 길에 이르러 거기서 우물을 발견했다. 그들은 물을 마시려고 우물을 파내려가다가 계속해 많은 철물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거기는 더 좋은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자꾸 깊 이 파내려갔다.

그때에 보살은 그들에게 "상인들, 탐욕 고있다. 은 멸망의 근본이다. 우리는 이제 많은 보 물을 얻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너무 파내 려가지 말자."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보 살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내려갔다.

그런데 그 우물은 용이 차지하고 있는 곳 이었다. 우물 밑에 있던 용왕은 제 집이 무 너져 흙덩이와 쓰레기가 떨어졌을 때 화를 내어. 보살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그 콧김 으로 때려 다 죽여 버렸다.

<본생경 중>

용왕이화가난까닭

코로나19와 같은 변종바이러스는 기후변화 와 생태계 파괴가 원인이다. 숲을 파괴하고 야 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에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인간 은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면 면역 체계에 의해 열을 내서 바이러스를 죽게 하는 데 기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바이러스는 결국 이러한 열에서 더 잘 살아남게 되었다.

지금의 기후변화는 인간이 과도한 화석연 료를 사용한 결과 온실가스가 증가하여 자연 상태에서의 균형이 깨진 때문이다. 지구 온도 가 1.5℃를 넘으면 더 이상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마치 땅 속에 용이 화가 난 것처럼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올해 우리는 50일이 넘는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쌀 생산량이 20% 정도 감소했다. 그래서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 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우리나라는 기온상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적은 나 라에 속한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만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다. 우 리나라 식량 자급률는 50%를 넘지 않는다, 그 그림=네팔 비레탄티 중학교 Pradeep Acharya 군(17세)

마저도 쌀을 제외하고는 90%이상 수입에 의 존하고 있다. 이상 기후와 자연자해로 해마다 곡물 생산량은 줄어들고 곡물가격은 상승하

만일 곡물이 부족한 지점에 이르면 각 나라 는 식량안보를 위해 국경을 봉쇄할 것이고 곡 물가격은 상상할 수 없이 치솟을 것이다. 마스 크 대란처럼 식량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다. 우리나라에서 한 실험에 따르면 고온재배 시 쌀의 품질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평균기온 을 2.5도 올린 상태에서 쌀의 수확량은 21.9% 로 크게 떨어졌다.

보살의 사명 '소욕지족'

기후위기는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고 식량 위기, 안보위기, 전염병의 증가 등으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사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인류는 욕망을 절제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부 를 골고루 나누며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한다. 2.6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 고 불교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 소욕지족의 가 르침을 이제 경제와 정치 영역으로 확산하고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기후 위기 시대에 보살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최상의 행복 (Mangala-sutta)

화령 정사 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숲에 있는 아나타핀디카 정사에 머무르 은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고 계셨다. 밤이 깊어졌을 때 한 천신이 눈부신 광채로 제타 숲을 비추며 세존이 7. 악을 그치고 멀리하며, 음주를 삼가 계신 곳으로 나타났다. 가까이 온 천신은 세존께 공손히 절하고 한 쪽 옆에 섰다. 상의 행복이니라. 그런 다음 세존께 게송으로 여쭈었다.

1. 많은 신들과 사람들은 간절히 행복을 바라면서 축복을 기원합니다. 원하오니 세존께서는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설하여 주옵소서.

(세존께서 이르셨다)

- 2.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지 있다면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혜로운 사람과 사귀며, 존경할 만한 사 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 이니라.
- 3.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공덕을 많이 쌓 으며, 바른 길에 들어서는 것, 이것이 최 상의 행복이니라.
- 4. 널리 배워 기예를 잘 익히고, 행동이 절제되어 있으며, 유쾌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 5. 부모를 잘 봉양하고, 배우자와 자식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최상의 을 잘 보살피며, 올바른 생업에 종사하 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6. 보시를 실천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세존께서 어느 때 사밧티 근처의 제타 친족을 돕고,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

고, 덕행을 부지런히 쌓는 것, 이것이 최

8. 남을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을 알 고 감사할 줄 알며, 때때로 진리의 가르 침을 듣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

9. 참을 줄 알고 온순하며, 자주 훌륭한 이를 방문하고, 때때로 진리를 논할 수

10. 자기를 잘 다스리고, 청정한 삶을 살 며, 사성제를 깨달아 열반에 이를 수 있 다면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11. 마음에 슬픔이 없고, 거리낄 것이 없 으며, 근심을 벗어 놓고 세상일에 흔들 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니

12. 이렇게 실천하는 자는 어느 곳에서 나 패배란 없으며, 항상 행복이 가득할 행복이니라.

초기경전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가르침도 설하고 있다. 대 표적인 것이 『숫따니빠따』의 〈행복경〉이다. 〈행복경〉에서는 세간에 사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소박한 행복과 더불어 이를 넘어선 열반의 행복, 출세간의 행복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12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졌다. 화령 정사(법전사 주교)가 이를 번역했다.

	불교서적 월간베스트(11/1		공 : 도서총판 운주시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 / 현천스님	선요가
2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3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4	능엄경 대의풀이 : 우주와 인생의 진리 근원을 밝힌	남회근 / 송찬문	마하연
5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6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불교와 유교의 철학 논쟁사 : 중국과 한국에서의 배불론과 호불론	도웅스님	운주사
8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스님 / 김계윤	불교신문사
9	초기불교입문 : 초기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10	적명을 말하다 :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ですが BTN にまじゃ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BTN붓다회 방송포교 25년

- 코로나19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다 -

만약,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나투신다면 어떻게 전법하실까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을 전하였지만, 오늘날이라면 방송국 카메라앞에서 법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송포교 매체가 BTN불교TV입니다 BTN 붓다회는 방송포교 원력을 후원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 1855-0108

네팔 산기슭 부메학교 새 교복 전달식 성료

신입생에게 파란 넥타이와 빨간 리본 달기 세리머니도





네팔 안나푸르나 부메학교 학생들의 새 교복 전달 행사가 지난 11월 23일 부메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테지 샤르마 학교장이 지 난 10월 9일 행사 관련하여 불교총지 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과 부산 정각사 신정회, 자비회 앞으로 초 청장(Invitation letter for new school uniforms ceremony)을 보내며 감사 와 존경의 뜻을 전해왔었다. (총지신문 252호 참조)

이날 행사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학교 에 모여 마치 축제처럼 진행되었다. 재 학 중인 학생 60여 명에게 학습과 운동 을 함께 할 수 있는 트레이닝복 형식의 교복이 전달되었으며, 신입 남학생들

에게는 파란 넥타이와 여학생들에게는 빨간 리본을 달아주는 세리머니도 함 께 진행되었다.

학교 측은 이날 대형 기념 플래카드 각사를 직접 방문하고, "저와 후원해 에 'Many Many thanks to BUDDH ISM CHONG JI JONG SECTION, South Korea, Jeong Gag Temple, for supporting school uniform to our students and teachers'의 대형 글자를 새겨 넣어 종단과 정각사의 희사에 특 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부메학교 테시 샤르마 학교장도 이 날 행사를 SNS를 통해 알리고, 한국의 도움으로 학생들에게 교복이 선사되었 으며, 학교는 물론 전교생과 학부모들 이 모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메

시지를 전했다.

종단과 부메학교 사이에서 이 사업 을 추진한 김규현 화백은 지난 25일 정 주신 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그 자리 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참 많이 아쉬웠지만, 아이들이 새 교복과 따듯 한 체육복을 입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며, "불교총지종 과 정각사의 신정회, 자비회 회원님들, 그리고 좋은 인연의 다리를 놓아주신 정법계 전수님께 오늘의 기쁨을 회향 합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제공=네팔 부메학교, 박재원 기자





정각사, 수능시험 원만불공 정진



부산 정각사(주교: 법경 정사)가 12월 3일 실시되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 능시험원만불공 정진 중인 가운데, 지난 11월 25일 불공 후 수험생을 둔 교 도들에게 응원의 선물을 전달했다.정각사는 코로나로 인해 불공에 불참하는 교도들을 위해 영상설법과 이달의 법문을 제공하는 등 교화와 제도에 앞장 서고 있다. 정각사=김부강 대리

축하드립니다

[밀인사] 김용옥 교도 손자 김옥인 교도 손녀

[자석사] 도우 정사, 지현 전수 [법황사] 법우 정사, 인지심 전수

[관성사] 김종여 교도 자 김영원

백민찬 아기 11월 6일 백일 장윤아 아기 11월 9일 탄생

장남 경병순 군 11월 14일 결혼 장남 유승태 군 11월 21일 결혼 클래식 보디빌딩 대회 1위

피트니스스타춘천&INFC강원대회2위

[만보사] 김무자 교도 자부 김민아 충청남도 장학사 시험 합격

총/지/문/단 ④

통리원 교정부장 승원 정사

서원당 불단(佛壇)의 진언종자(眞言種子)와 사종법(增益法)

본존을 모신 전각을 서원당이라 부릅니 다.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지혜를 닦는 수 행처이자 소원성취를 위해 서원을 세워 염 송 정진하는 곳'이라 법당이라 부르지 않 고 서원당이라 합니다.

서워당에는 3단 형식의 불단이 있고 불 단의 하단에는 총지종의 불공 의궤에서 서 원과 관련된 진언종자(眞言種子)가 새겨 져 있습니다.

왼쪽부터 '바', '아', '람', '하', '라'자입 와무명(無明)을 굴복시키는 법입니다. 니다. '람'자를 제외한 네가지 종자는 밀교

의 호마(護摩)법에 근거하여 종단의 사종 법(四種法)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언종자

사종법이란 식재법(息災法), 증익법(增益 法), 경애법(敬愛法), 항복법(降伏法)을 말 합니다.

식재법은 재난을 없애는 법, 증익법은 소 원성취를 위한 법, 경애법은 원만한 인간관 계를 위한 법, 항복법은 원수나 자신의 번뇌

이 사종법에 네 글자가 사용되는데 '바'

자는 식재법, '아'자는 증익법, '하'자는 경

애법, '라'자는 항복법의 진언종자입니다. 불단 중앙의 '람'자는 선정(禪定)에 드는 관법의 종자이고 그 관법을 '람자관'이라

〈출처:육자의궤염송〉

불단그림	(1)	Ħ	£(0	(K)	Î
진언종자	바	0}	람	하	라
사종법	식재법	증익법	람자관	경애법	항복법



불교총제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 불 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훔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진호국가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월초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건화사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단음사
				선립사
		서울,경기교구		수계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수인사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숭인동)	(02)762-1412	승천사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제석사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관음사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단향사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량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덕화사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밀행사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법성사
				<u>삼밀사</u> 성화사
		충청,전라교구		실보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운천사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일상사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u> </u>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정각사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화음사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동해사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공모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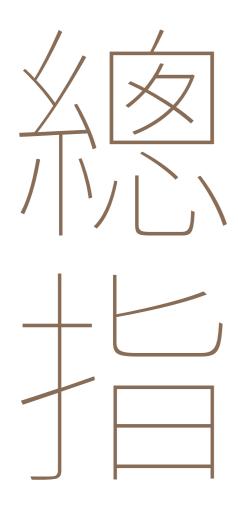
- 총지종 역사적 가치가 담긴 기록물
- 총지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장품
- 문서, 사진, 동영상, 책자 등

공모 방법

- 접수 및 문의: 종보실
- Tel: 02-552-1080
- 보낼곳: 우편 및 이메일
- E-mail: news@chongji.or.kr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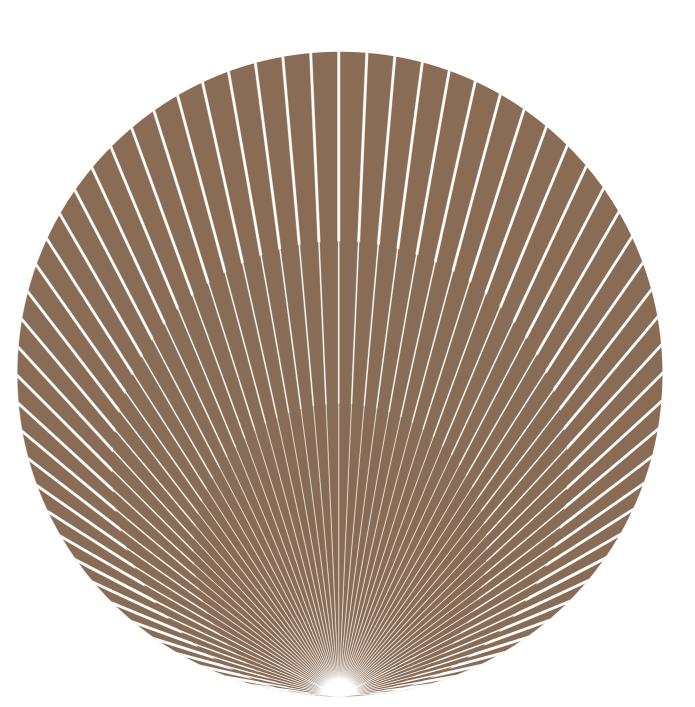


불교총지종 50年史 편찬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사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역사가 하나 둘씩 모여, 총지종 50년이 만들어집니다.



총지의역사를 찾습니다





마감 일정

2020. 12. 31.

☆ 불교총지종